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목 차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시사점 및 제언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3. 조사 방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와 이용 변화 -> 서비스 개선

- ('20.1.20) 국내 첫확진자 발견, 위기경보 주의
- ('20.02.23) 위기경보 '심각'(대구/경북지역)
- ('20.03.11) WHO 팬데믹 선언
- ('20.3.22~ 4.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20.4.20 ~ 5.5)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20.5.6~)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
- ('20.6월 초) 전자출입명부제도 운영
- ('20.8.15) 8.15집회 후 전국적 사회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 ('21.10.18~10.31)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조정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하나 사적모임 기준 완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발생,
여성고용 감소 및 돌봄 책임 증가 등
변화된 일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 제기됨**

II. 조사 목적

[가족서비스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한다]

- 코로나 19 이후 가족서비스 이용현황을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8가지 가족서비스별로 파악한다.
-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를 파악한다.
- 특히 비대면 서비스 전환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분석한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고용 및 근무형태, 가족관계나 활동, 정서적 상태 등 관련된 변화를 분석한다.
- 향후 워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희망서비스 영역을 파악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20년과 비교해 결혼태도, 배우자와 공평한 분담에 대한 생각, 가족지지 의 변화를 파악한다.
- 주요 변인별로 가족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족서비스의 방향 제안

III. 조사 방법

1. 조사개요

	가족서비스 조사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대상	일반국민 1,500명 중 센터 이용 경험자 219명, 2021년 센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일반국민 1,500명 및 2021년 센터 이용자 1,000명
조사 표본	1,219명	2,500명
조사 시점	2021년 10월 2일~7일	2021년 10월 2일~7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방식 및 선호도 - 향후 가족서비스 수요 및 선호 방식 등(비대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이후 가족생활의 변화(돌봄부담, 가족관계, 일상 생활 변화 등)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지지 등)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61.6%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음(26.8%).
- 1인가구는 7.8%였으며, 부부+자녀 3인 가구 이상이 54.3%를 차지함
- 80.2%가 다문화가족이었으며, 8.2%가 한부모가족이었음.

전 체		응답자 수(명)	비율(%)
		2,500	100.0%
성별	남성	960	38.4%
	여성	1,540	61.6%
연령	20대	365	14.6%
	30대	634	25.4%
	40대	671	26.8%
	50대	393	15.7%
	60대 이상	437	17.5%
거주 가족 구성	1인 가구	195	7.8%
	2인 가구(부부)	239	9.6%
	2인 가구(한부모)	105	4.2%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57	54.3%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604	24.2%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 가족	504	20.2%
	비다문화 가족	1,996	79.8%
한부모 가족 여부	한부모 가족	206	8.2%
	비한부모 가족	2,294	91.8%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1,221	48.8%
	없음	1,279	51.2%

2. 분석 결과

1.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3.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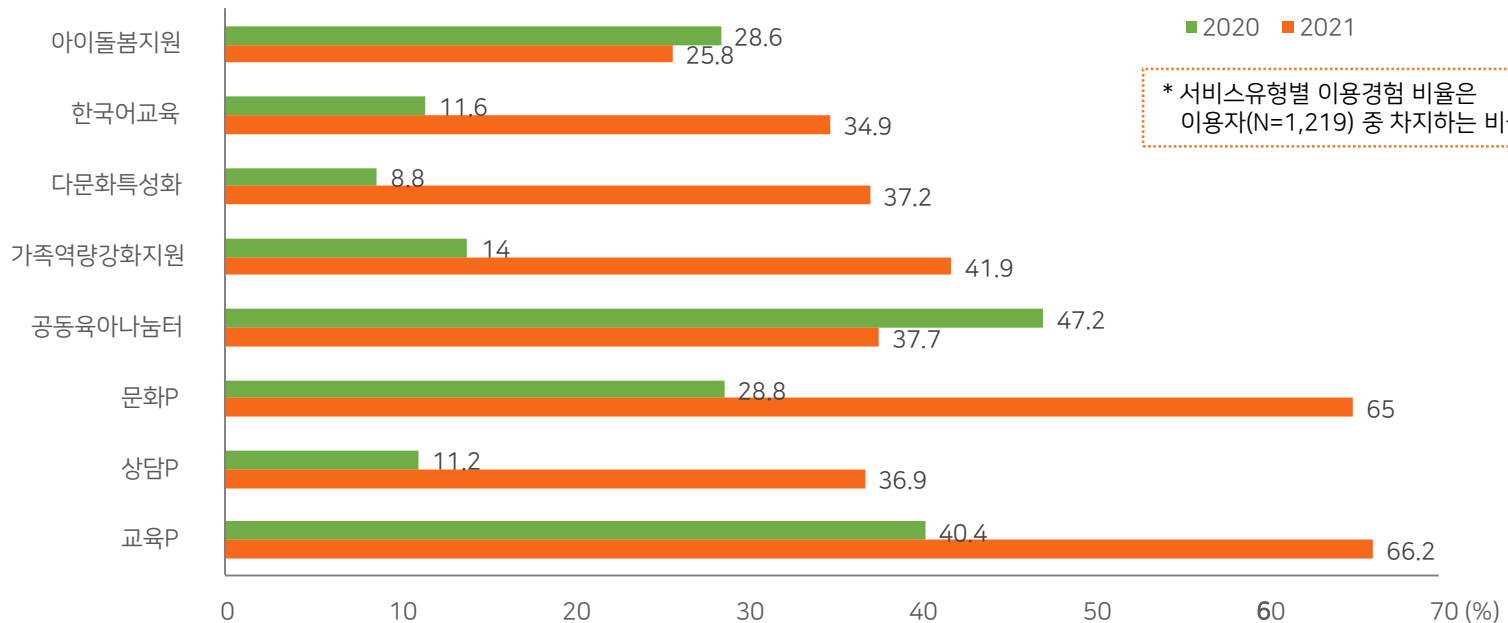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사례수 대비 여성(57.4%), 30~40대(67.5%, 63.2%),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가구(72.4%)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58.8%), 다문화가족(96.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예		구분	사례수	예		
		빈도(건)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빈도(건)	비율(%)	
전 체		2500	1219	48.8					
성별	남성	960	335	34.9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1256	515	41.0
	여성	1540	884	57.4		임시근로자	134	75	56.0
연령	20대	365	162	44.4		일용직·시간제/아르바이트	255	167	65.5
	30대	634	428	67.5		자영업	179	85	47.5
	40대	671	424	63.2		학생	64	26	40.6
	50대	393	123	31.3		전업주부	426	281	66.0
	60대 이상	437	82	18.8	무직	186	70	37.6	
거주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195	22	11.3	가구 소득	하위층(300만원 미만)	767	450	58.7
	2인 가구(부부)	239	104	43.5		중위층(300~600만원 미만)	1177	541	46.0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05	76	72.4		상위층(600만원 이상)	556	228	41.0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57	798	58.8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504	484	96.0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604	219	36.3		비다문화 가족	1996	735	3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9	273	54.7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204	99	48.5
	대학 및 대학교	1762	831	47.2		비한부모 가족	2296	1120	48.8
	대학원 이상	239	115	48.1		재택 근무 경험	있음	771	442
				없음	1147		479	41.8	
				해당없음	582		298	51.2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가족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중복응답)에서, **교육 P, 문화 P 이용이 가장 높음**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이용자 수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N=807) >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 (N=792) > 상담 프로그램 이용자 (N=450)
(전년대비 1.6배 증가) (전년대비 2.3배 증가) **(전년대비 3.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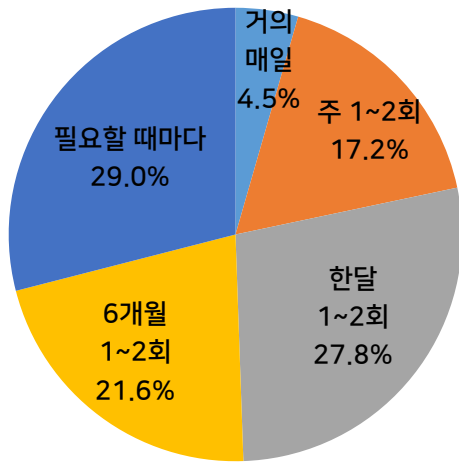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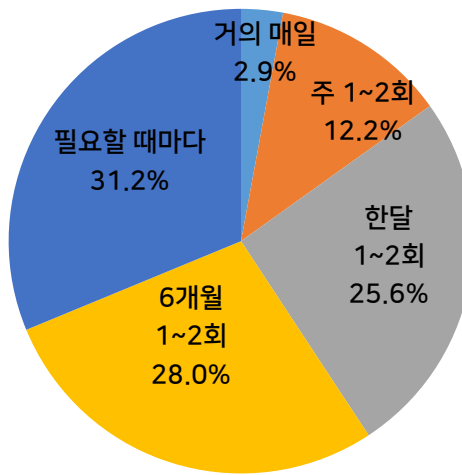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1)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이용

-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모두 필요할 때마다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29.0%, 31.2%, 29.6%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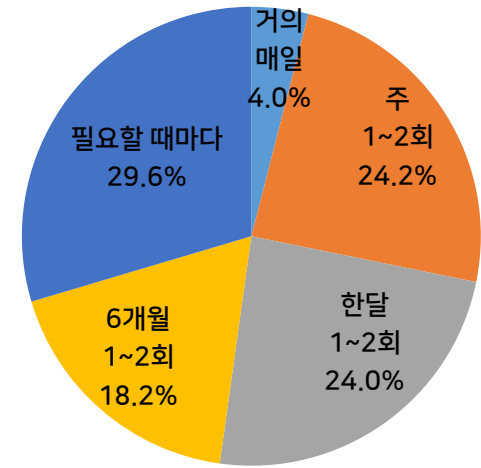
[교육p 이용 빈도]



[문화p 이용 빈도]



[상담p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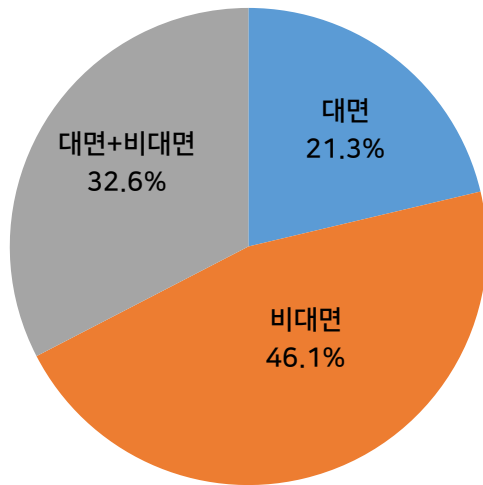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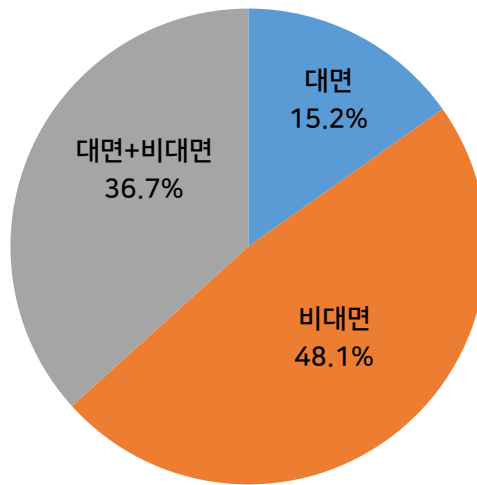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2)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이용 방식

- 비대면 > 대면 + 비대면 > 대면 순으로 변화
-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문화 p(48.1%)** > 교육 p (46.1%) > 상담 p (35.8%)
- **대면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 문화 p(36.7%) > 교육 p (32.6%) > 상담 p (30.0%)
- **대면** 프로그램 참여 : **상담p(34.2%)** > 교육p(21.3%) > 문화 p(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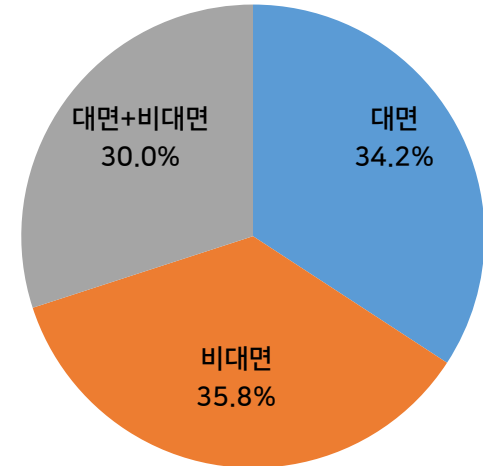
[교육p 참여 방식]



[문화p 참여 방식]



[상담p 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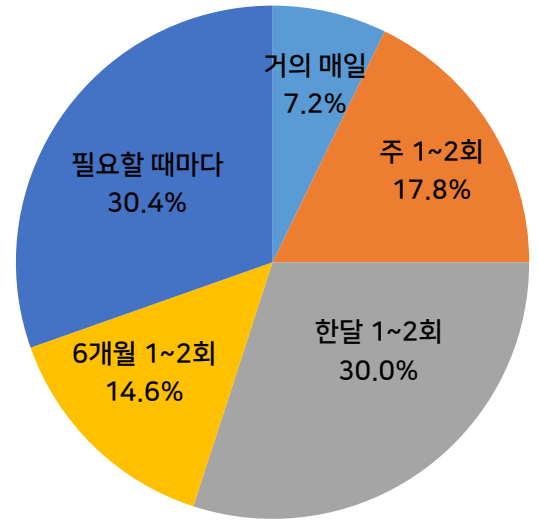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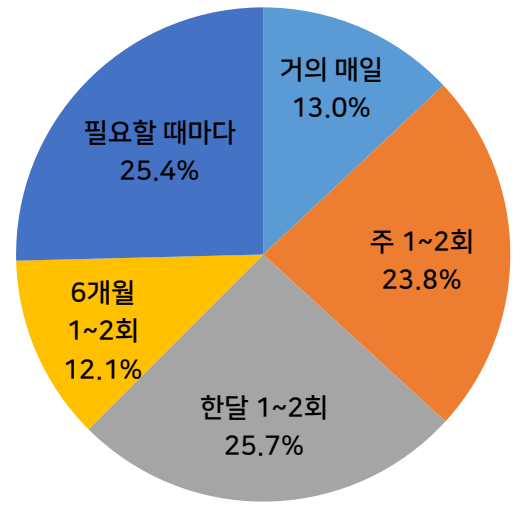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3)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지난 1년간('20.08~'21.08)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이용자(N=460),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N=315) 중
- 필요할 때 마다 이용 : 공동육아나눔터 (30.4%) > 아이돌봄서비스(25.4%)
- 한달 1~2회 이상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62.5%) > 공동육아나눔터(5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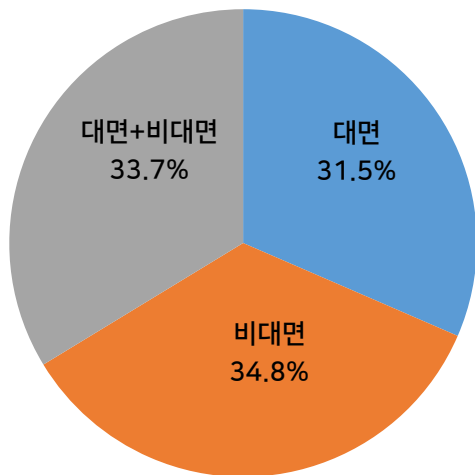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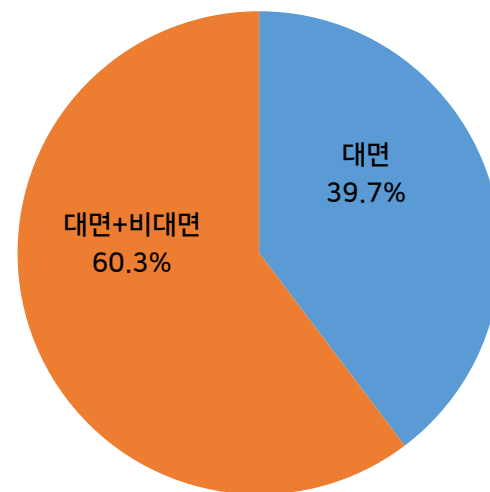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4)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식

- 아이돌봄서비스는 방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대면+비대면 서비스제공이 60.3%로 응답하였으나, 자녀의 온라인교육 지원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포괄적 응답한 것으로 추정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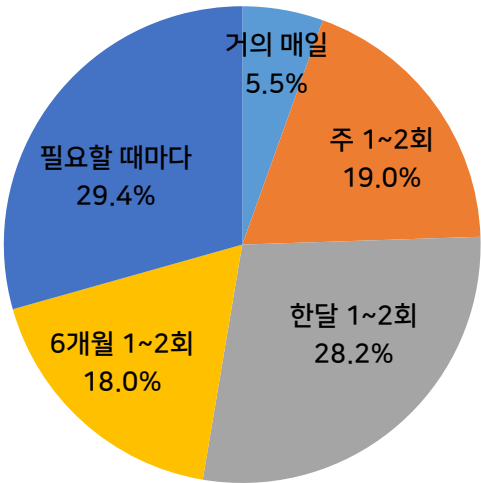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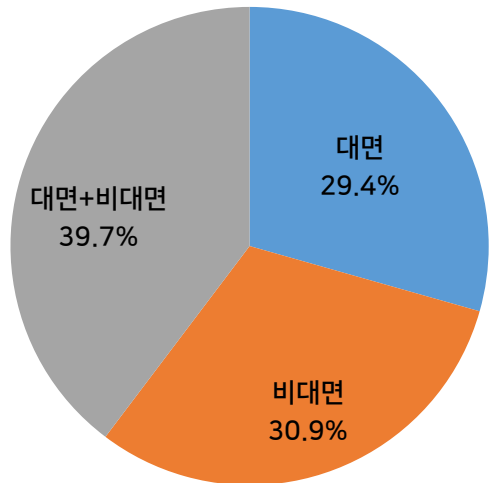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5)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중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N=511)의 이용빈도는 '필요할때마다' (29.4%), '한달 1~2회'(28.2%) 순으로 나타남
- 이용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한 경우(39.7%)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비대면'(30.9%), '대면'(29.4%) 순서임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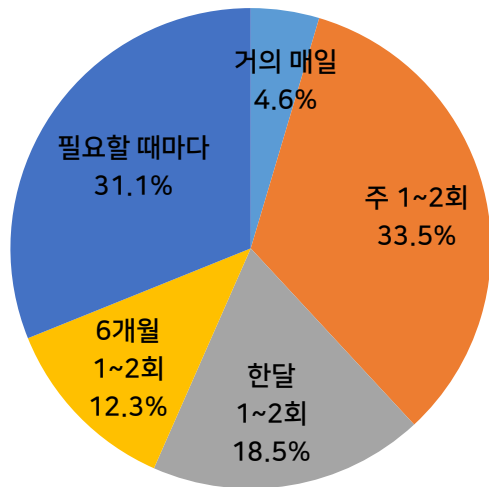
[이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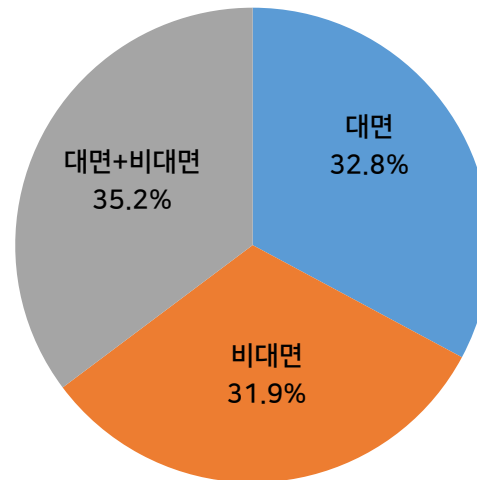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6)다문화특성화사업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중 다문화특성화 사업 이용자(N=454)의 이용빈도는 '주1~2회' (33.5%)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할때마다'(31.1%) 순으로 나타남
- 이용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한 경우(35.2%)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면'(32.8%), '비대면(31.9%) 순으로 나타남

[이용 빈도]



[이용 방식]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2. 가족서비스 진행방식의 선호도

- 지난 1년간('20.08~'21.08) 센터에서 이용한 가족서비스의 진행방식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70% 이상 응답자들은 '선호한다'고 응답함
- 문화프로그램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제외한 프로그램 영역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일때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면으로만 이용했다는 응답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음

(빈도: 건 / 선호도: 점)

구분	전체		대면으로만 이용		비대면으로만 이용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교육프로그램	807	74.4	172	68.5	372	73.3	263	79.8
상담프로그램	450	73.5	154	71.9	161	69.1	135	80.6
문화프로그램	792	77.9	120	75.2	381	79.5	291	76.8
공동육아나눔터	460	77.3	145	78.4	160	71.7	155	82.1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511	79.6	150	81.2	158	74.8	203	82.1
다문화특성화사업	454	77.5	149	79.9	145	70.2	160	82.0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426	80.6	91	78.8	179	77.4	156	85.3
아이돌봄지원사업	315	76.7	125	79.6	-	-	190	74.9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2020년 보다 2021년 기준 이전보다 지난 1년간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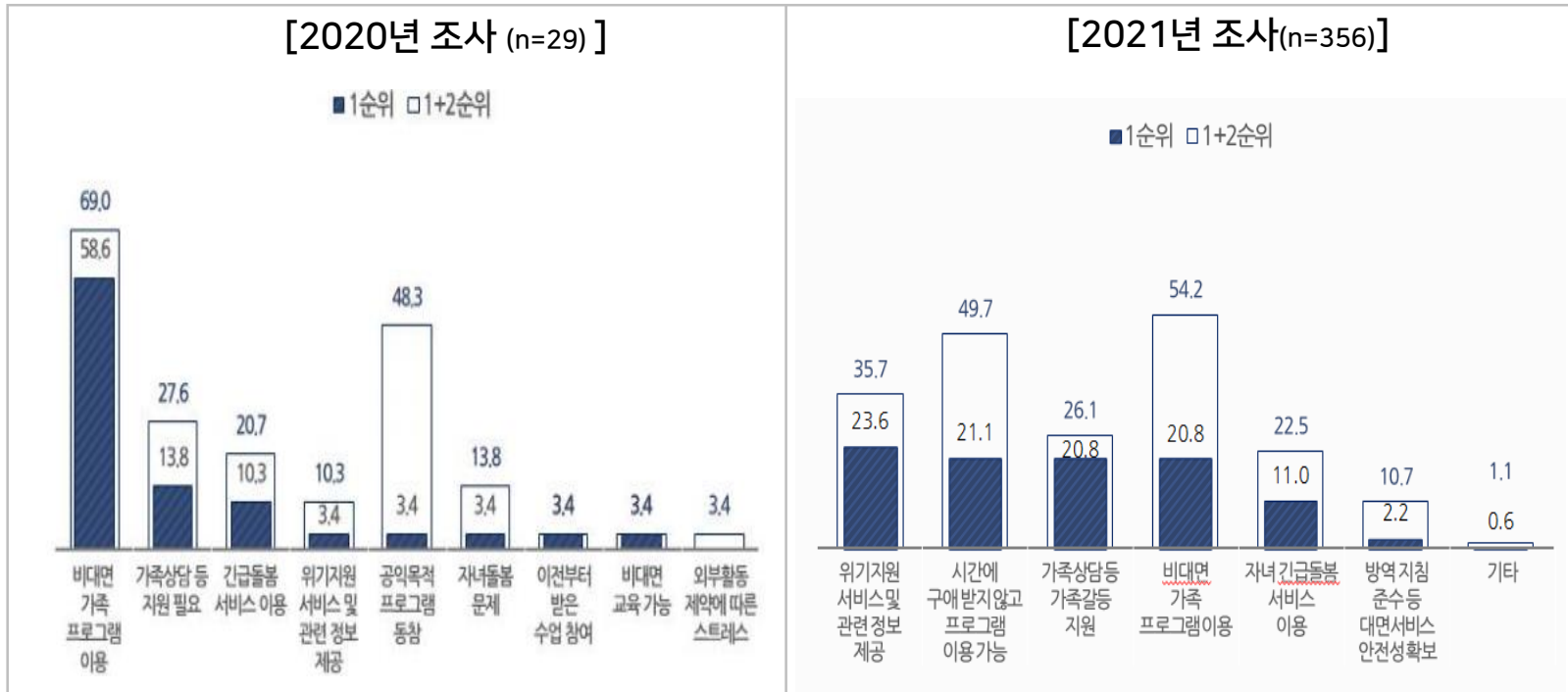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구분	사례 수 (이용경험자)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		변화가 없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0년 조사	404	29	7.2	61	15.1	314	77.7
2021년 조사	1219	356	29.2	347	28.5	516	42.3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증가했다) '21년 조사에서는 이용빈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가족상담 등 가족갈등지원이 필요해서',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이용' 의 이유도 유사한 비율을 차지함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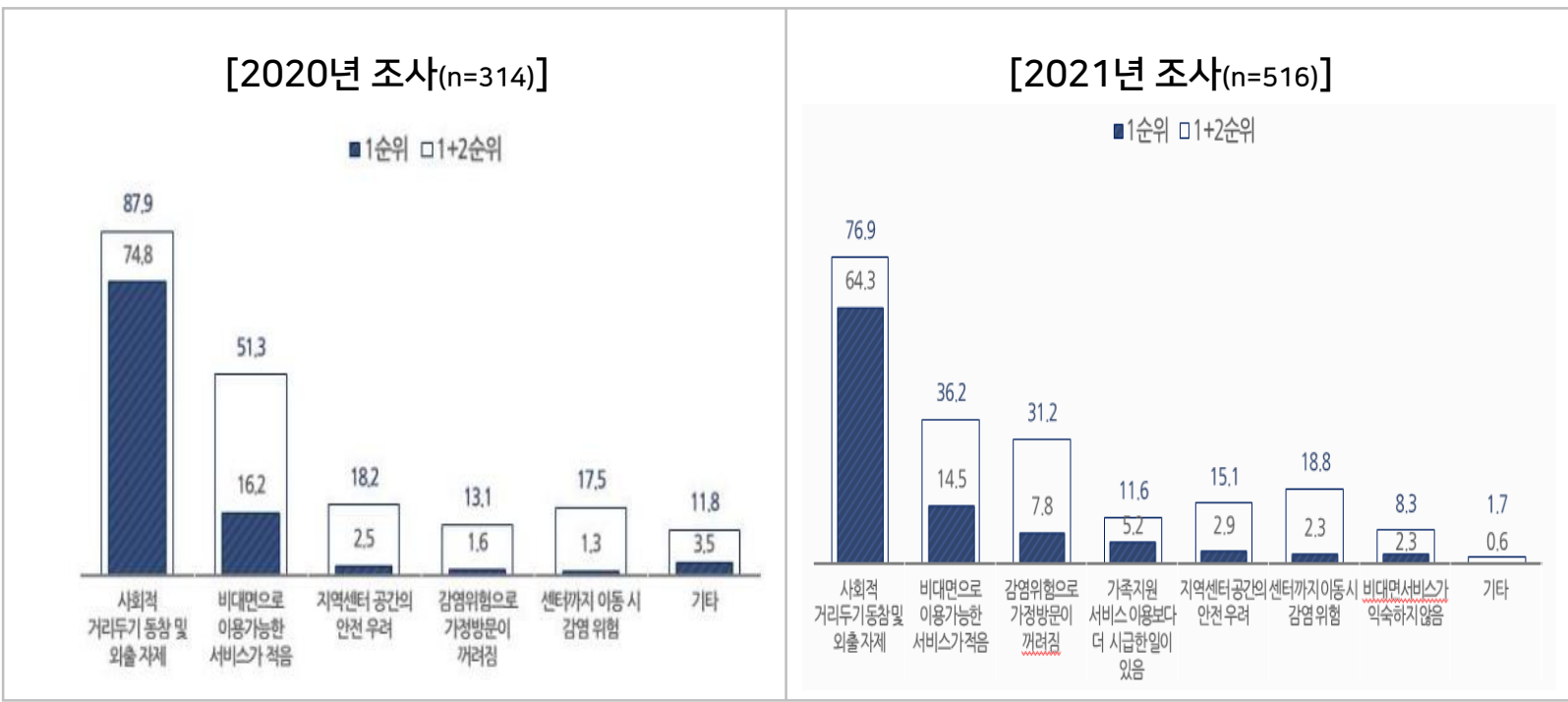
- (증가했다: 연령별 비교) '21년 조사에서, 20대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는 '생활 등 어려움이 있어 위기지원 서비스 지원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40대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구분	연령	사례수 (N=356)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갈등 문제로 가족상담 등 지원이 필요해서		자녀돌봄 문제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온라인 콘텐츠, 키트 제공 등)		센터 내 방역 지침 준수 강화 등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센터방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1년	20대	50	8	16.0	15	30.0	4	8.0	20	40.0	2	4.0	1	2.0
	30대	133	37	27.8	27	20.3	18	13.5	24	18.0	22	16.5	5	3.8
	40대	124	27	21.8	15	12.1	9	7.3	22	17.7	47	37.9	2	1.6
	50대	20	2	10.0	6	30.0	4	20.0	6	30.0	2	10.0	0	0.0
	60대 +	29	0	0.0	11	37.9	4	13.8	12	41.4	2	6.9	0	0.0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가족서비스 이용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여전히 높음. '감염우려'나 '센터의 안전 우려' 등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음' 이유도 확인됨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감소했다: 연령별 비교)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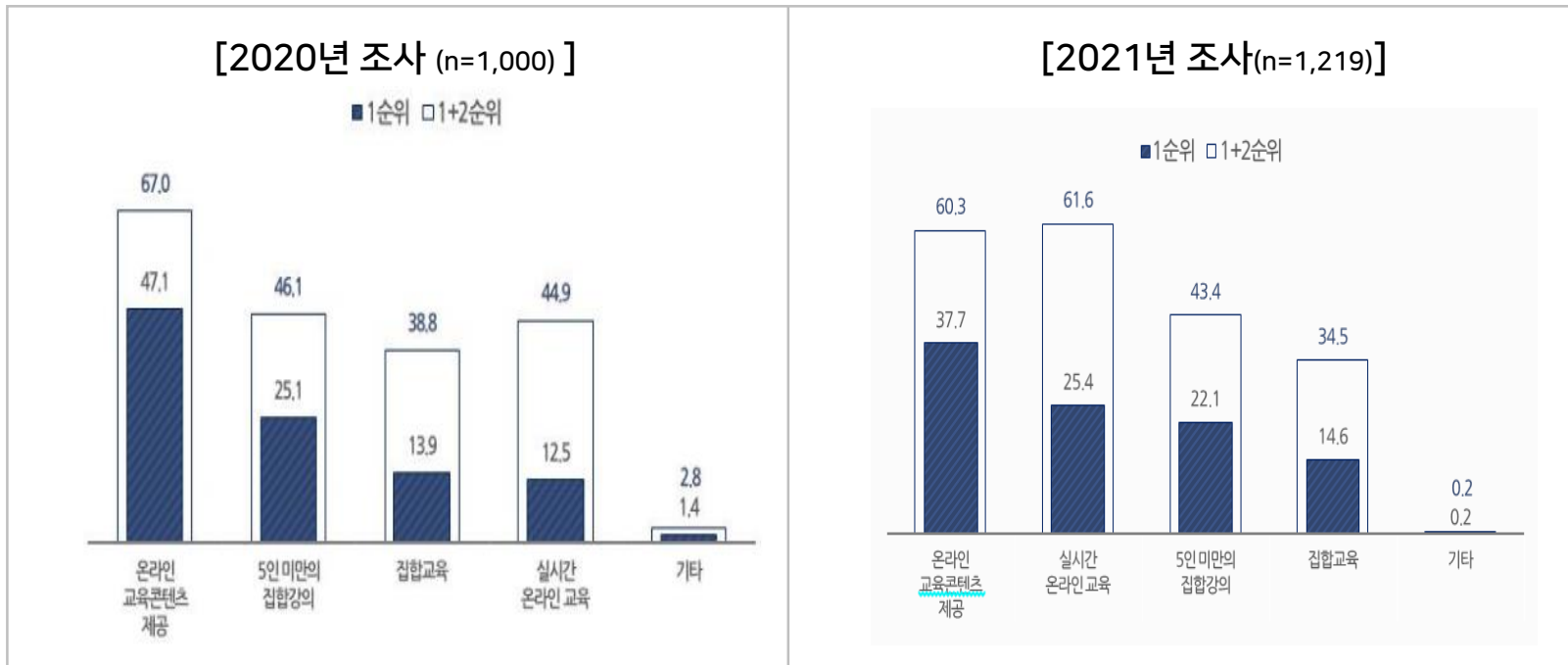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구분	연령	사례수 (N=516)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어서		지역센터 공간의 안전(방역문제 등)에 대한 우려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으로 누군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망설여져서		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어서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1 년	20대	61	38	62.3	8	13.1	2	3.3	9	14.8	1	1.6	3	4.9
	30대	185	127	68.6	15	8.1	6	3.2	15	8.1	6	3.2	11	5.9
	40대	192	118	61.5	39	20.3	7	3.6	10	5.2	4	2.1	7	3.6
	50대	49	28	57.1	8	16.3	0	0.0	5	10.2	1	2.0	4	8.2
	60대+	29	21	72.4	5	17.2	0	0.0	1	3.4	0	0.0	2	6.9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4. 선호하는 교육 서비스 방식 :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부모교육과 한국어교육 등 교육서비스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37.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25.4%), 5인미만 집합강의(22.1%), 집합교육(14.6%) 순임.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높음
- 2순위까지 합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교육(61.6%)을 가장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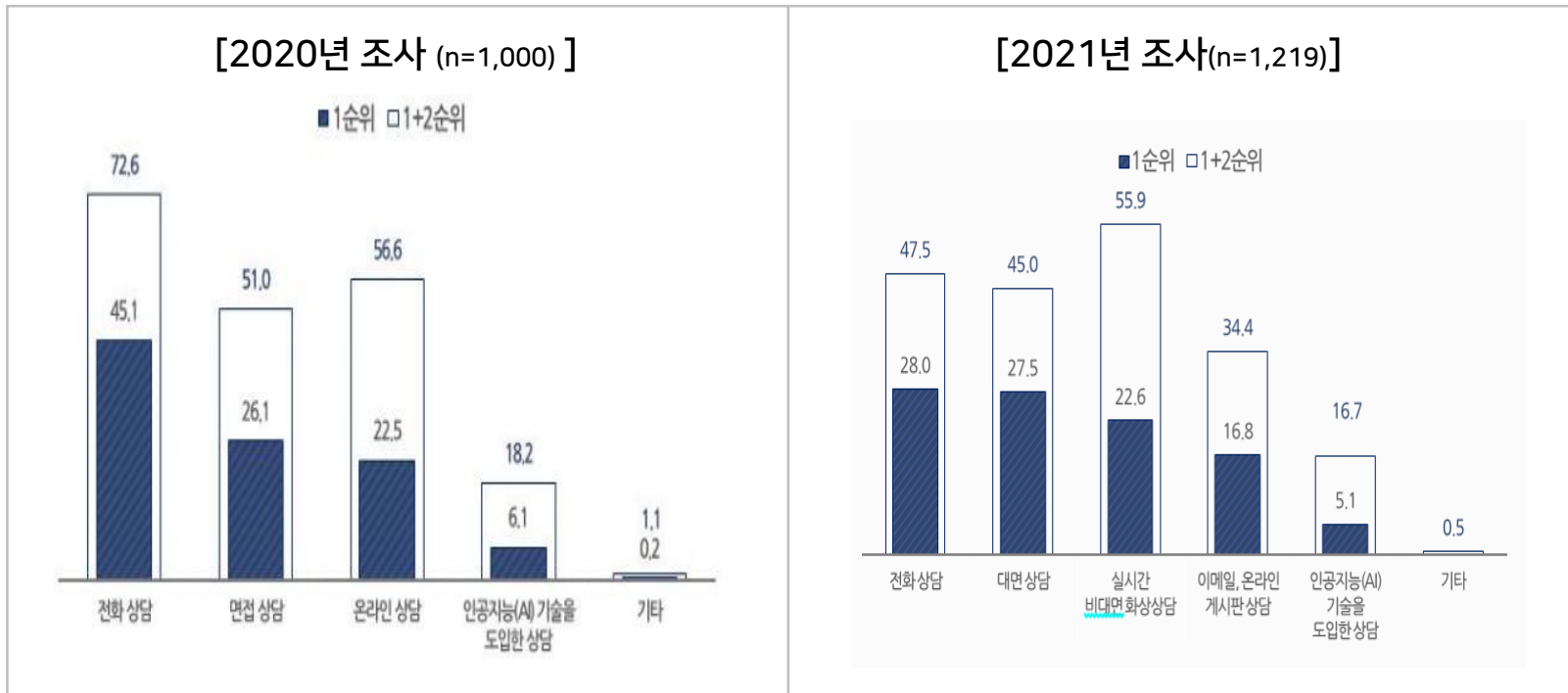
4. 선호하는 교육 서비스 방식 :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남녀 모두 대면보다 비대면방식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콘텐츠제공,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사례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실시간 온라인 교육		5인 미만의 집합 강의		집합교육(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기타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전 체		1,221	461	37.8	311	25.5	269	22.0	178	14.6	2	.2
성별	남성	337	130	38.6	89	26.4	74	22.0	43	12.8	1	.3
	여성	884	331	37.4	222	25.1	195	22.1	135	15.3	1	.1
연령	20대	163	70	42.9	37	22.7	37	22.7	19	11.7	0	0.0
	30대	428	164	38.3	106	24.8	92	21.5	66	15.4	0	0.0
	40대	425	154	36.2	103	24.2	98	23.1	68	16.0	2	.5
	50대	123	42	34.1	35	28.5	30	24.4	16	13.0	0	0.0
	60대 이상	82	31	37.8	30	36.6	12	14.6	9	11.0	0	0.0

5. 선호하는 상담 서비스 방식 : 전화상담>대면상담>비대면상담

- 부부, 부모자녀 등 상담서비스로 선호하는 방식은 전화상담이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면상담,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 이메일과 온라인 게시판상담 순으로 나타남/ 2순위까지 합한 경우,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55.9%)을 가장 선호함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5. 선호하는 상담 서비스 방식 : 전화상담>대면상담>비대면상담

- 20대(35.2%) 전화상담/ 30대(29.9%)와 40대(32.5%)는 면접상담/ 50대(26.8%) 및 60대 이상(46.3%)는 비대면 화상상담선호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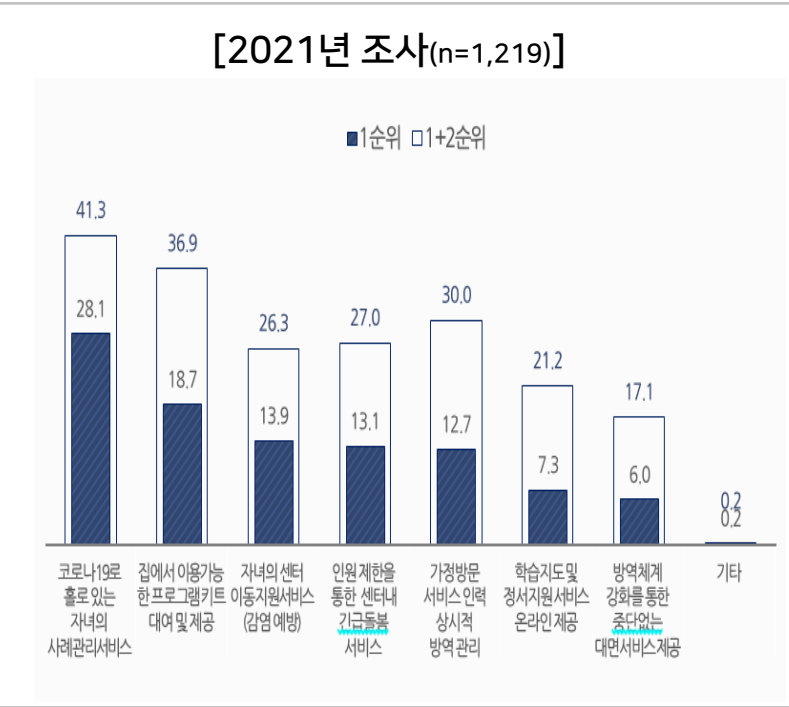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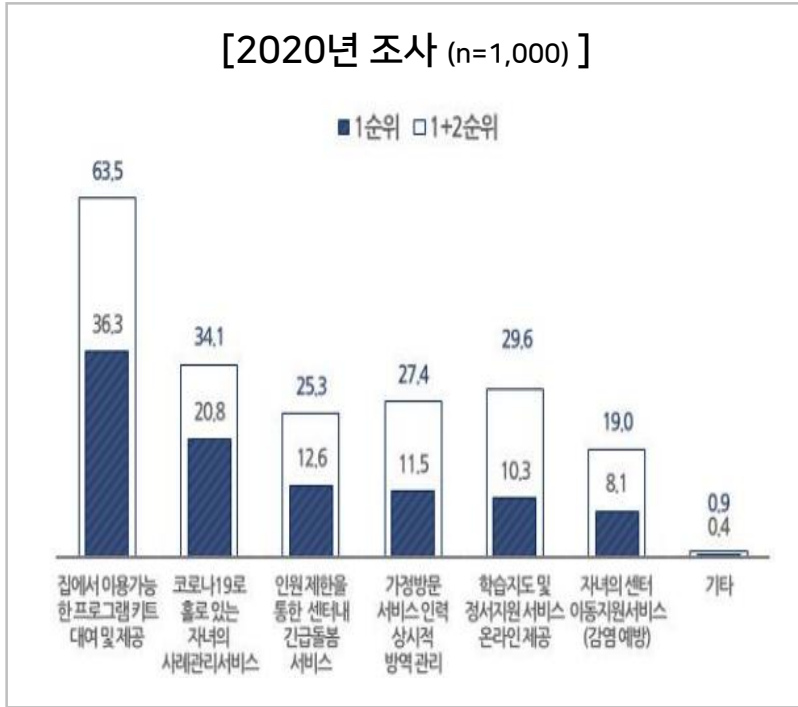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향후상담방식선호도		사례수	전화상담		대면상담(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상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221	342	28.0	335	27.4	276	22.6	206	16.9	62	5.1
성별	남성	337	72	21.4	73	21.7	86	25.5	83	24.6	23	6.8
	여성	884	270	30.5	262	29.6	190	21.5	123	13.9	39	4.4
연령	20대	163	57	35.0	23	14.1	29	17.8	50	30.7	4	2.5
	30대	428	122	28.5	128	29.9	89	20.8	70	16.4	19	4.4
	40대	425	123	28.9	138	32.5	87	20.5	51	12.0	26	6.1
	50대	123	27	22.0	32	26.0	33	26.8	20	16.3	11	8.9
	60대 이상	82	13	15.9	14	17.1	38	46.3	15	18.3	2	2.4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6. 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서비스는 자녀사례관리서비스 요구 많음

- 돌봄 및 방문서비스 이용시 선호하는 방식은 홀로있는 자녀의 식사, 생활지도, 학습 등의 사례관리서비스(28.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키트대여 및 제공, 자녀의 센터 이동지원 서비스, 센터내 긴급돌봄서비스 등 순임
- 자녀의 센터 이동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요구도가 증가함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6. 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서비스는 자녀사례관리서비스 요구 많음

- 50대의 경우 가정방문 서비스 인력의 상시적 방역관리(22.8%), 그외 연령대는 홀로있는 자녀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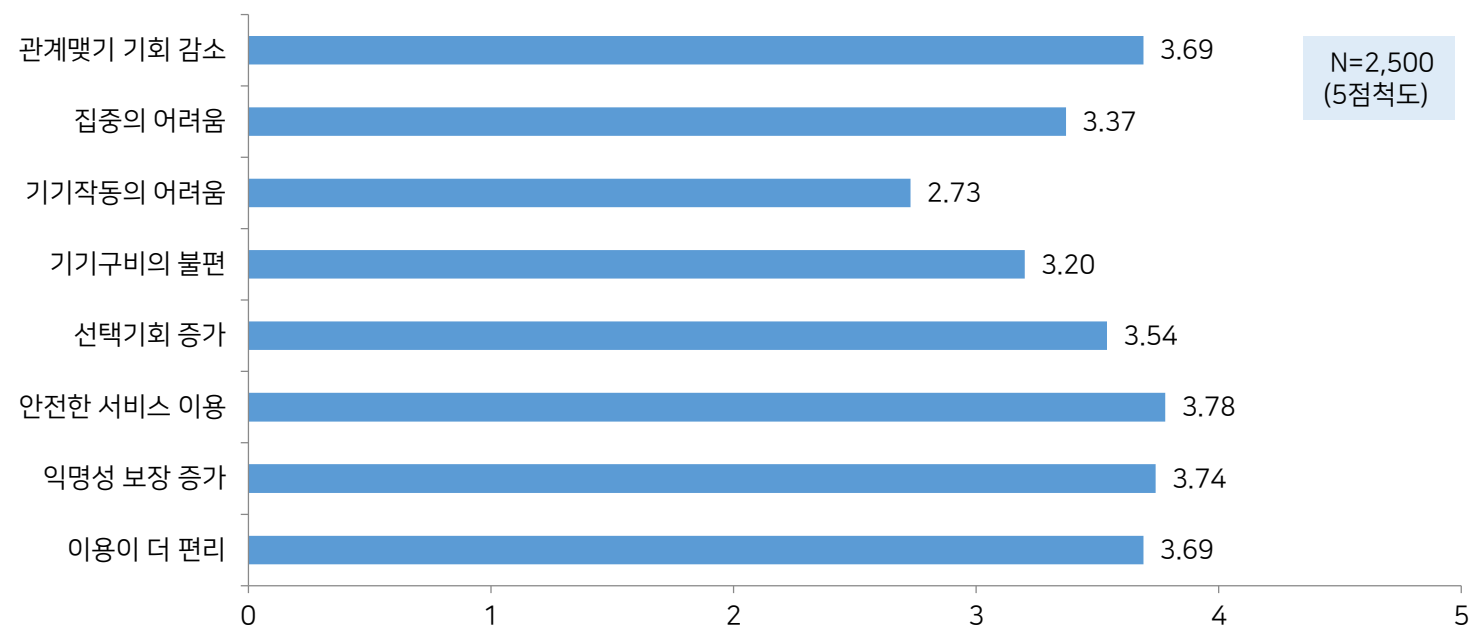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사례수	홀로 있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키트 대여 및 제공		센터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센터 내 긴급돌봄서비스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상시 방역관리 강화		방문교육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한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중단 없는 대면서비스 운영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221	343	28.1	228	18.7	170	13.9	161	13.2	155	12.7	89	7.3	73	6.0	2	.2	
성별	남성	337	98	29.1	42	12.5	54	16.0	59	17.5	37	11.0	26	7.7	20	5.9	1	.3
	여성	884	245	27.7	186	21.0	116	13.1	102	11.5	118	13.3	63	7.1	53	6.0	1	.1
연령	20대	163	43	26.4	23	14.1	38	23.3	21	12.9	21	12.9	8	4.9	9	5.5	0	0.0
	30대	428	118	27.6	85	19.9	48	11.2	67	15.7	57	13.3	37	8.6	15	3.5	1	.2
	40대	425	130	30.6	105	24.7	46	10.8	49	11.5	39	9.2	27	6.4	28	6.6	1	.2
	50대	123	24	19.5	11	8.9	19	15.4	16	13.0	28	22.8	13	10.6	12	9.8	0	0.0
	60대 이상	82	28	34.1	4	4.9	19	23.2	8	9.8	10	12.2	4	4.9	9	11.0	0	0.0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1.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생각

-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해, 어려움이나 불편함 보다는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3.78), 익명성(3.74), 편리성(3.69)의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함
- 혼자서 기기작동의 어려움(2.73)이나 기기를 갖추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3.2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든다(3.69)는 생각은 높은 편임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돌봄 부담 증가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증가'했고 응답한 사람은 69.9%임 (해당없음 7.0% 제외)
- 가족서비스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80.4%), 여성, 40대와 30대, 일용직 및 시간/아르바이트 근로, 다문화가족, 비한부모가족, 재택근무경험자 등의 자녀 돌봄 부담 증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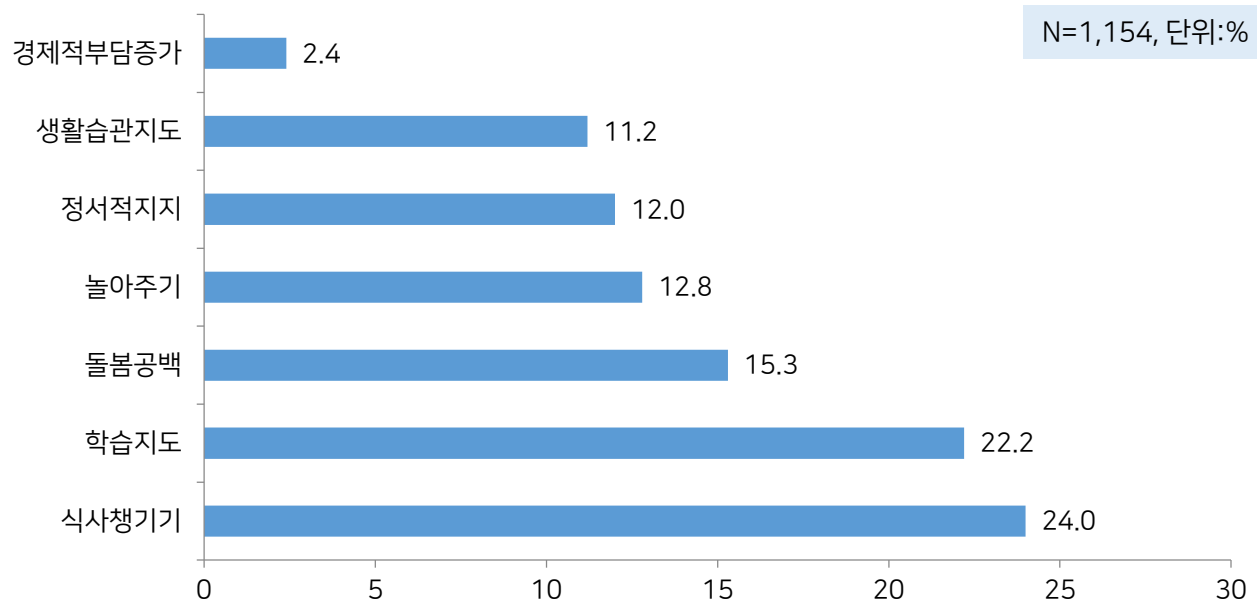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140	8.5	240	14.5	1154	69.9			66	8.0	124	15.1	590	71.8
가족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35	3.5	127	12.6	810	80.4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66	8.0	124	15.1	590	71.8
	없음	105	16.3	113	17.6	344	53.5		임시근로자	7	8.5	14	17.1	55	67.1
성별	남성	56	10.2	88	16.1	368	67.3		일용직 및 시간/아르바이트	11	6.5	21	12.5	131	78.0
	여성	84	7.6	152	13.8	786	71.3		자영업	12	9.8	22	17.9	82	66.7
연령	20대	6	5.7	17	16.2	69	65.7		학생	0	0.0	0	0.0	7	58.3
	30대	22	5.3	66	15.9	310	74.7		전업주부	36	9.9	48	13.2	239	65.8
	40대	17	3.1	57	10.5	458	84.2	무직	8	10.0	11	13.8	50	62.5	
	50대	45	14.9	55	18.2	166	54.8	하위층	29	6.5	77	17.2	307	68.7	
	60대 이상	50	17.7	45	15.9	151	53.4	중위층	68	8.5	105	13.1	580	72.5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0	9.5	16	15.2	65	61.9	가구소득	상위층	43	10.7	58	14.4	267	66.3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13	8.3	186	13.7	970	71.5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22	5.4	65	15.9	300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17	9.0	38	20.2	119	63.3	비다문화 가족	비다문화 가족	118	9.5	175	14.1	854	68.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8.1	44	13.7	215	67.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11	11.6	13	13.7	61	64.2
	대학 및 대학교	101	8.7	173	15.0	812	70.2		비한부모 가족	비한부모 가족	129	8.3	227	14.6	1093
	대학원 이상	13	7.5	23	13.3	127	73.4	재택 근무 경험	있음	23	4.2	64	11.6	435	78.9
							없음		86	11.8	119	16.3	477	65.3	
									해당없음	31	8.4	57	15.5	242	65.8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돌봄 부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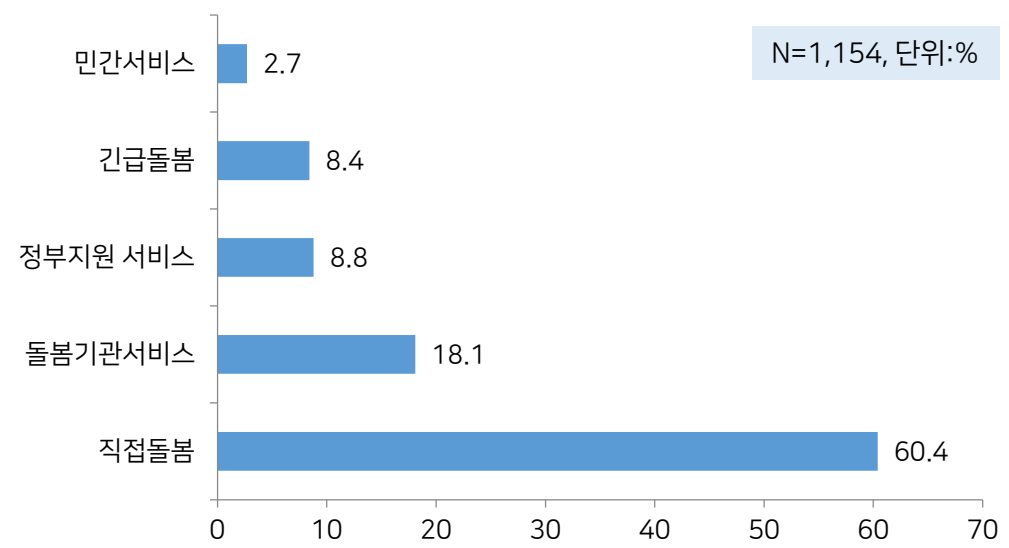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증가한 자녀돌봄의 부담 영역은, 매끼 식사 챙기기(24.0%)와 자녀의 학습지도 (22.2%)이며, 그 다음으로 갑작스런 유치원 휴원과 등교중단으로 인한 돌봄공백 대처에 대한 어려움(15.3%)이 제시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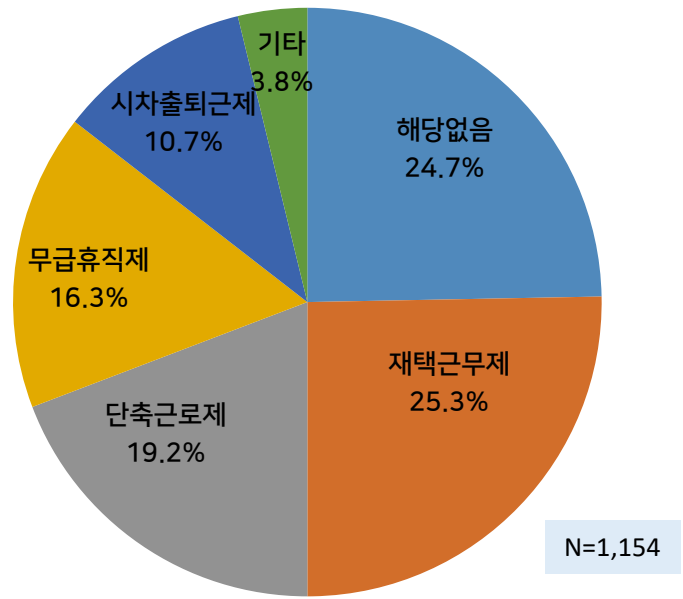
- 자녀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18.1%)하거나 정부지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8.85) 순임
- 긴급돌봄 이용자도 전체(N=1,154) 중 8.4%에 해당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관련 제도 사용 경험

- 자녀돌봄과 관련해서 일터에서 제공하는 제도 사용 경험은, 재택근무제(25.3%)가 가장 많았으며, 단축근로제(19.2%), 무급휴직제(16.3%), 시차출퇴근제(10.7%) 순임(해당없음 N=285 제외)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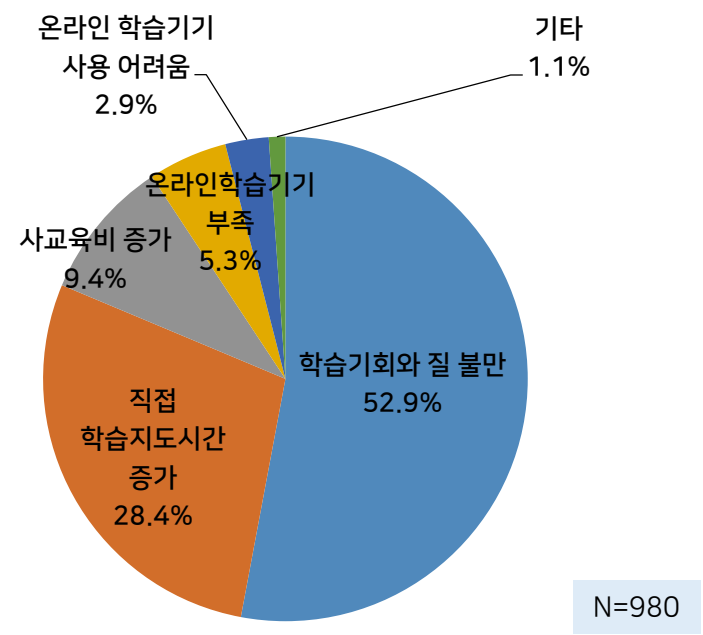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온라인 학습에 대해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람은 59.4%임(해당없음 11.8% 제외)
- 가족서비스 이용경험자(67.5%), 여성(61.3%), 30대(67.0%)와 40대(72.8%), 재택근무 경험자(68.6%) 등에서 스트레스 증가가 있다는 응답이 높음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162	9.8	314	19.0	980	59.4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51	5.1	184	18.3	680	67.5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92	11.2	149	18.1	501	60.9		
	없음	111	17.3	130	20.2	300	46.7		임시근로자	12	14.6	14	17.1	49	59.8		
성별	남성	71	13.0	106	19.4	304	55.6		가구 소득	일용직 및 시간제/아르바이트	8	4.8	40	23.8	109	64.9	
	여성	91	8.3	208	18.9	676	61.3			자영업	10	8.1	22	17.9	77	62.6	
연령	20대	1	1.0	1	1.0	7	6.7			다문화 가족	학생	0	0.0	1	8.3	6	50.0
	30대	25	6.0	104	25.1	278	67.0				전업주부	31	8.5	65	17.9	204	56.2
	40대	42	7.7	106	19.5	396	72.8	무직			9	11.3	23	28.8	34	42.5	
	50대	47	15.5	60	19.8	161	53.1	하위층			27	6.0	103	23.0	263	58.8	
	60대 이상	47	16.6	43	15.2	138	48.8	중위층	85		10.6	142	17.8	488	61.0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5	14.3	17	16.2	60	57.1	한부모 가족	상위층	50	12.4	69	17.1	229	56.8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1	9.7	263	19.4	825	60.8		다문화 가족	21	5.1	97	23.7	228	55.6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16	8.5	34	18.1	95	50.5		비다문화 가족	141	11.4	217	17.5	752	60.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7.5	76	23.7	151	47.0	재택근무 경험	한부모 가족	17	17.9	17	17.9	50	52.6		
	대학 및 대학교	122	10.6	209	18.1	714	61.8		비한부모 가족	145	9.3	297	19.1	930	59.8		
	대학원 이상	16	9.2	29	16.8	115	66.5		있음	33	6.0	86	15.6	378	68.6		
								없음	98	13.4	164	22.4	392	53.6			
								해당없음	31	8.4	64	17.4	210	57.1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스트레스 증가 이유

- 자녀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유는, '자녀의 학습기회와 학습의 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52.9%)가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직접 돌보는 학습지도 시간 증가'(28.45)의 이유가 제시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발달 지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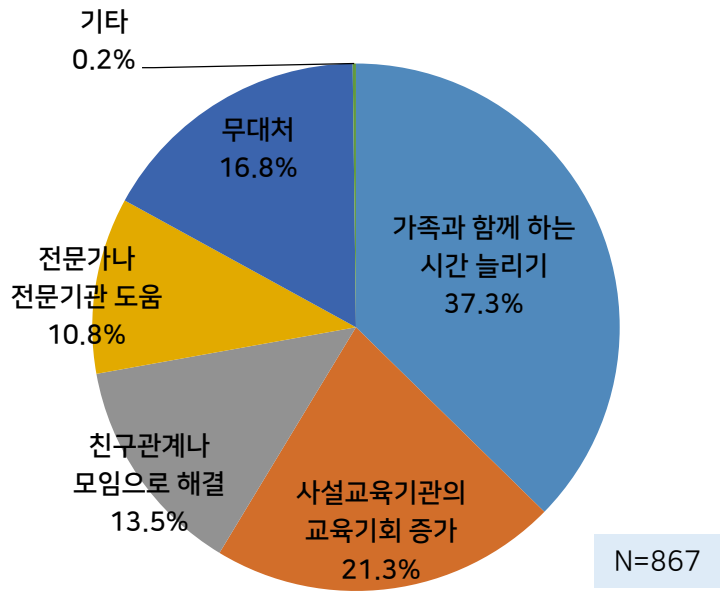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지연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2.5%임
- 특히, 가족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거나, 30대와 40대, 자영업자, 다문화가족, 그리고 재택근무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302	18.3	338	20.5	867	52.5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127	12.6	197	19.6	639	63.5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160	19.5	158	19.2	447	54.4	
	없음	175	27.2	141	21.9	228	35.5		임시근로자	18	22.0	16	19.5	43	52.4	
성별	남성	116	21.2	112	20.5	276	50.5		가구소 득	일용직 및 시간제/아르바이트	28	16.7	44	26.2	89	53.0
	여성	186	16.9	226	20.5	591	53.6			자영업	14	11.4	27	22.0	73	59.3
연령	20대	7	6.7	28	26.7	55	52.4			학생	1	8.3	1	8.3	4	33.3
	30대	58	14.0	89	21.4	250	60.2			전업주부	59	16.3	82	22.6	175	48.2
	40대	107	19.7	105	19.3	314	57.7	무직		22	27.5	10	12.5	36	45.0	
	50대	72	23.8	59	19.5	126	41.6	하위층	60	13.4	93	20.8	255	57.0		
	60대 이상	58	20.5	57	20.1	122	43.1	중위층	156	19.5	162	20.3	421	52.6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 (부+자녀/모+자녀)	19	18.1	14	13.3	55	52.4	다문화 가족	상위층	86	21.3	83	20.6	191	47.4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257	18.9	284	20.9	713	52.5		다문화 가족	44	10.7	87	21.2	256	62.4	
	3인 가구 이상 (부모 등 기타)	26	13.8	40	21.3	99	52.7	비다문화 가족	258	20.8	251	20.2	611	4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15.3	51	15.9	170	53.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21	22.1	14	14.7	51	53.7	
	대학 및 대학교	230	19.9	242	20.9	602	52.1		비한부모 가족	281	18.1	324	20.8	816	52.5	
	대학원 이상	23	13.3	45	26.0	95	54.9	재택 근무 경험	있음	82	14.9	104	18.9	339	61.5	
							없음		159	21.8	161	22.0	343	46.9		
							해당없음		61	16.6	73	19.8	185	50.3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발달 지연에 대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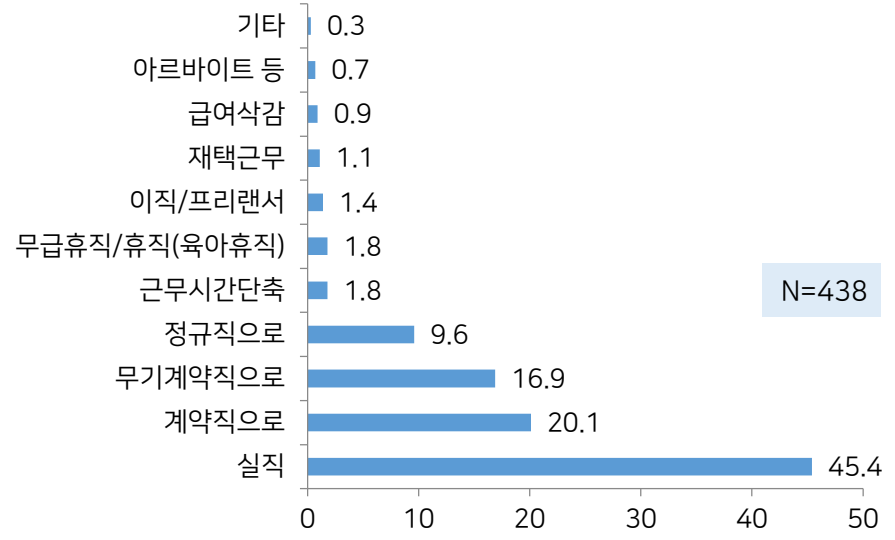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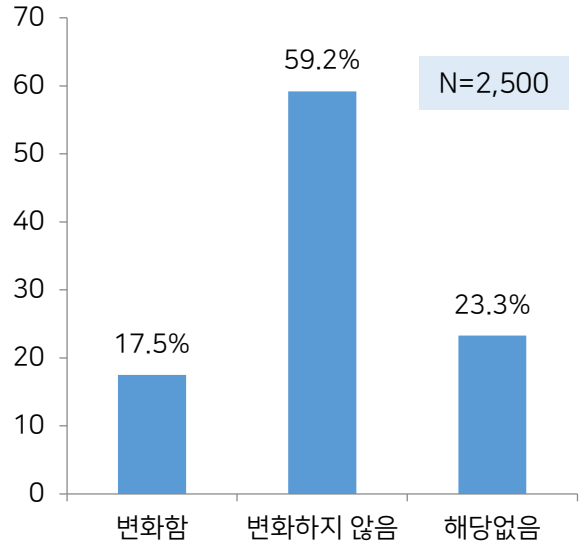
-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지연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37.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기회를 더 제공하는 경우(21.3%), 친구관계나 모임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13.5%) 순이며,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8% 수준임
- 특히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6.8%나 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3. 고용 및 근무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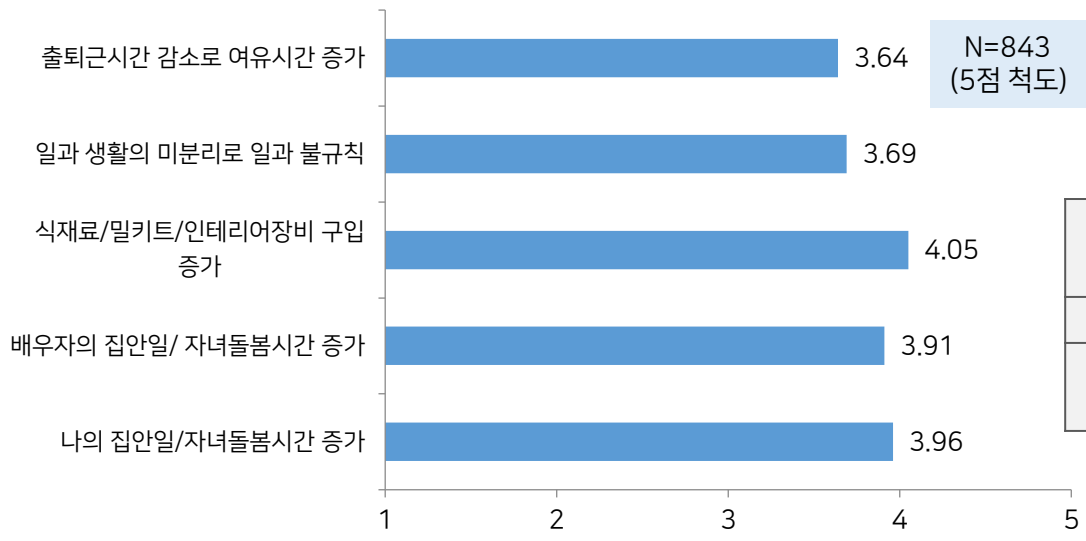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N=2,500)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및 근무형태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5%(N=438)임
- 이들 중 45.4%는 실직의 경험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20.1%), 또는 무기계약직(16.9%)로 변화 되었다고 응답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3. 고용 및 근무형태의 변화 : 재택근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N=843),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식재료나 밀키트, 집안 인테리어 설비나 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소비가 늘어난 변화가 가장 높음
- 나의 집안일과 자녀돌봄시간 증가(3.96점)가 배우자의 증가(3.91)보다 높다고 인지하며, 출퇴근시간 감소로 여유시간이 증가했다는 생각(3.64점)은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여성의 집안일/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집안일/ 자녀돌봄 증가		사례수	나	배우자
		빈도	(평균 5점)	(평균 5점)
전 체		843	3.96	3.91
성별	남성	391	3.88	4.05
	여성	452	4.03	3.80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4.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

- 전체 응답자(N=2,500) 중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55.3%)이나 가족 개별적 시간(52.4%)이 증가했다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됨. 상대적으로 야외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증가(33.2%) 경우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38.4%)가 약간 많음
- 자녀와 조부모나 친척과의 왕래 기회는 감소했다는 비율은 64.4%임
-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증가한 경우(46.0%)도 그렇지 않은 경우(1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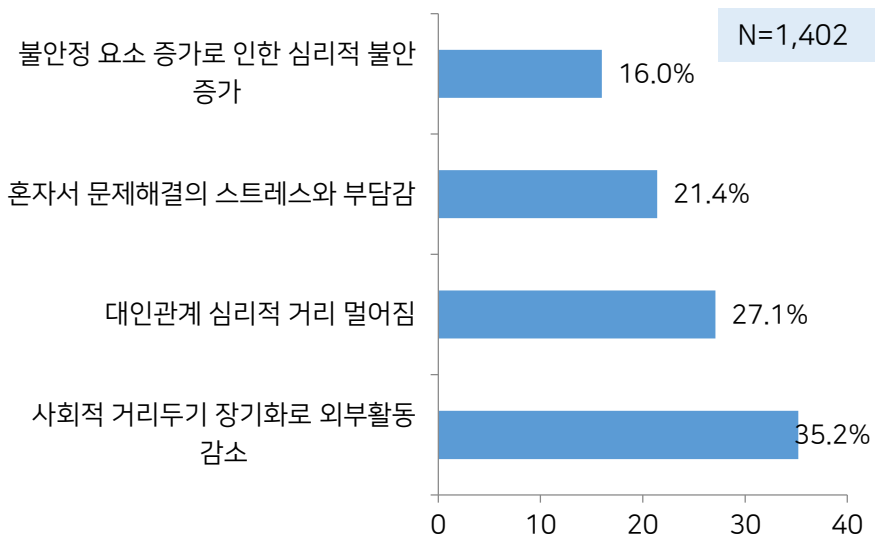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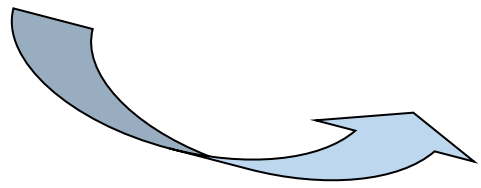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	'그렇다'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가족들의 개별 시간 증가	52.4%	3.52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증가	55.3%	3.58점
야외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증가	33.2%	2.93점
자녀와 조부모/친척 왕래 기회 감소	64.4%	3.86점
가족들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 증가	46.0%	3.39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5. 정서적 상태 변화와 그 이유

- 전체 응답자(N=2,500) 중 정서적 상태 변화에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 이상임. 특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증가한 경우도 32.7%나 됨
- 그 이유로는 외부활동 감소(35.2%)와 대인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점(27.1%)가 가장 많음

정서적 상태 변화	'그렇다'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우울감 증가	42.3%	3.2점
고독감 증가	40.0%	3.15점
불행감 증가	32.7%	3.0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6.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서비스 : 선호도

- 향후, 위드 코로나시대에 가족센터의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돌봄지원(53.7%) > 문화프로그램(53.4%) > 가족역량강화지원(52.6%) 사업 순

항목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평균(100점 환산)
	선호하지않음	보통	선호함		
교육프로그램	10.3	39.5	50.2	3.47점	61.7점
상담프로그램	11.0	40.1	48.9	3.47점	61.8점
문화프로그램	8.9	37.7	53.4	3.59점	64.8점
공동육아나눔터	13.0	37.8	49.2	3.47점	61.8점
가족역량강화지원	9.2	38.2	52.6	3.56점	64.1점
다문화특성화	14.6	41.6	43.8	3.38점	59.4점
한국어교육	14.9	40.9	44.2	3.39점	59.7점
아이돌봄지원	9.6	36.7	53.7	3.57점	64.3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6.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서비스 : 희망 프로그램

- 향후, 위드 코로나시대에 가족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으로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가족원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제안이 많은 편임.
- 자녀교육과 가족교육, 놀이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요리교육, 역사교육, SNS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제안도 많음
- 자녀놀이 체험이나 놀이교육, 놀이키트제공 등에 대한 요구나 가족문화 및 여행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안됨

서비스 제안	응답 비율(%)	서비스 제안	응답 비율(%)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개인 및 가족)	4.0	가족체험	0.6
돌봄 지원(유아, 어르신 등)	3.6	요리교육	0.5
자녀교육 및 가족교육	1.9	긴급자녀돌봄	0.3
가족문화 및 여행지원	2.9	자녀학습 및 자격증 교육 지원	0.5
가족관계증진 및 치료	0.9	1인가구 지원	0.3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2.3	문화교육	0.2
가사지원 및 식사제공	1.1	방문교육 및 방문상담 확대	0.3
자녀놀이체험 및 놀이교육/놀이키트제공	2.3	소그룹 코칭/소모임지원	0.2
한국어 및 언어교육/통번역	1.4	SNS 교육	0.1
취업지원/경제적 지원	0.8	가정상담사	0.1
1대1멘토서비스	0.4	밀키트 제공	0.1
가정방문 교육	0.4	성인자녀 교육지원	0.1
비대면 서비스 확대/다양화	0.6	공동육아센터	0.1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결혼태도 : 전체

- '21년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년도 대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결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도별 큰 차이는 없지만 '21년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도 보다 낮고 그렇다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항목	구분	사례수(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2020년	1,100	(351)	31.9	(749)	68.1	2.7
	2021년	1,766	331	18.7	1435	81.3	2.9
결혼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2020년	1,100	(492)	44.7	(608)	55.3	2.6
	2021년	1,766	627	35.5	1139	64.5	2.7
결혼은 나의 불안전성을 보완해준다	2020년	1,100	(262)	23.8	(838)	76.2	2.9
	2021년	1,766	407	23.0	1359	77.0	2.9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	2020년	1,100	(430)	39.1	(670)	60.9	2.7
	2021년	1,766	816	46.2	950	53.8	2.6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	2020년	1,100	(619)	56.3	(481)	43.7	2.4
	2021년	1,766	1117	63.3	649	36.7	2.3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	2020년	1,100	(536)	48.7	(564)	51.3	2.5
	2021년	1,766	1034	58.6	732	41.4	2.4
결혼은 나의 직업경력을 방해한다	2020년	1,100	(576)	52.4	(524)	47.6	2.4
	2021년	1,766	979	55.4	787	44.6	2.4
결혼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2020년	1,100	(515)	46.8	(585)	53.2	2.5
	2021년	1,766	972	55.0	794	45.0	2.4
결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2020년	1,100	(309)	28.1	(791)	71.9	2.9
	2021년	1,766	454	25.7	1312	74.3	2.9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2. 결혼여부에 대한 본인 의견

- '21년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5.3%)이 '2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62.3%)은 '20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구분	사례수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평균 (5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0년	1,100	(20)	1.8	(54)	4.9	(391)	35.5	(453)	41.2	(182)	16.5	-	-	3.7
2021년	1,766	16	0.9	77	4.4	532	30.1	763	43.2	338	19.1	40	2.3	3.8

3. 배우자와 가사 및 양육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생각

- “배우자와 가사 및 자녀양육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1.4%로, ‘20년에 비해 16.8% 높게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구분	사례수 (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0년	1,100	(64)	6.0	(302)	28.5	(627)	59.2	(66)	6.2	2.7
2021년	1,766	159	9.0	699	39.6	660	37.4	248	14.0	2.4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가족지지에 대한 인식

- 가족지지에 대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 4가지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대부분 80%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항목	구분	사례수 (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우리 가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2020년	1100	(166)	15.1	(934)	84.9	3.0
	2021년	1766	368	20.8	1398	79.2	2.9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얻는다	2020년	1100	(212)	19.3	(888)	80.7	3.0
	2021년	1766	309	17.5	1457	82.5	3.0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할 수 있다	2020년	1100	(212)	19.3	(888)	80.7	3.0
	2021년	1766	354	20.0	1412	80.0	3.0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한다	2020년	1100	(235)	21.4	(935)	85.0	3.0
	2021년	1766	393	22.3	1489	84.3	3.1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결혼에 대한 본인의 태도, 배우자와의 가사 및 양육 분담, 가족 지지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함.

(평균: 점)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부담 증가		평균(100점 만점)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부정 응답자	80.3
	긍정 응답자	75.5
평소 배우자와 가사와 양육 분담이 공평하다	부정 응답자	75.9
	긍정 응답자	75.0
우리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부정 응답자	79.9
	긍정 응답자	73.8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얻는다	부정 응답자	77.4
	긍정 응답자	74.6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할 수 있다	부정 응답자	77.7
	긍정 응답자	74.5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한다.	부정 응답자	78.0
	긍정 응답자	74.6

3. 시사점 및 제언

1. 비대면/대면 서비스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서비스 실시 및 확대, 각 서비스별 대면,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 혼용의 3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전체 가족서비스에서 70% 이상의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
 -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혼용한 가족서비스 제공이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대면서비스의 확산에 대해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3.8점*), 익명성(3.7점), 편리성(3.7점)' 등의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나, '집중의 어려움(3.4점), 기기 구비의 불편함(3.2점), 기기작동의 어려움(2.7점)'을 호소한 의견도 있음 * 5점 리커트척도

또한 비대면서비스로 인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기회가 줄어든다(3.7점)'는 의견도 있음
- 서비스별 서비스 진행방식 선호도
 - 대면 서비스 : 아이돌봄(39.7%), 상담(34.2%), 다문화특성화(32.8%), 공동육아(31.5%), 가족역량(29.4%)
 - 비대면서비스 : 문화(48.1%), 교육(46.1%), 한국어교육(42%)

➡ 위드코로나 시대 대면/비대면서비스 안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 비대면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비대면서비스 확대로 인해 기기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
-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마련 및 대면/비대면 혼용 프로그램 다양화 등 안전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 비대면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및 센터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2.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필요 (1)

- 자녀 돌봄 영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언어발달/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가 일어났다' 응답(52.5%) → (자녀 발달 지연에 대한 대처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37.3%), 친구관계나 모임으로 해결(13.5%), 무대처(16.8%)
-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영역에서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증가'(52.4%)
-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
: 아이돌봄지원(53.7%) > 문화프로그램(53.4%) > 가족역량강화지원(52.6%) 순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2.3배 증가

➔ 돌봄서비스 +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간 융합 필요

-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의 발달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여가 지원,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가족구성원, 자녀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목표 설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부모 연령 등 다양한 동질그룹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사회활동 경험 기회 보완

2.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필요 (2)

- 자녀돌봄 영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자녀 돌봄문제 대처 방안 : 직접돌봄(60.4%)
-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한 영역 : '학습지도(22.2%), 정서적지지(12%), 생활습관지도(11.2%)' 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59.4%)
 - 이유 : 학습기회와 질 불만(52.9%), 직접 지도 시간 증가(28.4%) 등
- 전년대비 상담프로그램 이용자(3.3배) 증가, 교육프로그램 이용자(1.6배) 증가
위드코로나 시대 희망 프로그램에서 개인/가족 상담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서비스 진행방식
 - (상담) : 전화상담(28%), 대면상담(27.4%), 비대면 화상상담(22.6%), 이메일/온라인게시판(16.9%) 등
 - (교육) : 온라인교육콘텐츠제공(37.8%), 실시간온라인교육(25.5%), 5인미만 집합강의(22%), 집합교육(14.5%)

➡ 돌봄서비스 + 교육/상담 프로그램 간 융합 제언

-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양육자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예) 자녀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부모교육, 양육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증가 추세, 자녀돌봄 관련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 선호하는 서비스 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녀 돌봄 지원 관련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주목(코로나19 초기와 비교)

- 결혼에 대한 태도 전년 대비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태도 증가 :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13.2% ↑),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9.2% ↑) 등
 - 부정적인 태도 감소 :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9.9% ↓),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7.0% ↓),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7.0% ↓) 등
-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소폭 높게 나타남
 - '하는 편이 좋다' 소폭 증가 : '20년 57.7% → '21년 62.3% (4.6% ↑)
 -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소폭 감소 : '20년 6.7% → '21년 5.3% (1.4% ↓)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태도)
 -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남: '20년 53.2% → '21년 45.0% (8.2% ↓)
 -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여전히 높음: '20년 71.9% → '21년 74.3% (2.4% ↑)
-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가족 중심의 일상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 및 가족관계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의 충족 등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경제적인 상황,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관계 지원 필요

-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한 가족 내 긍정적인 관계경험 기회 제공 → 교육적 접근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가족인식 개선 방안 모색, 가족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가능

4. 향후 가족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가족생활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
 - 가족간 물리적(공간), 심리적(정서적 유대) 공유 영역 증가
 - 재택근무, 온라인 등교 등 비대면 환경의 급격한 확산
 - 친구모임, 취미생활 등 사회적 외부 활동 축소로 인한 개인의 일상 변화
-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변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및 비대면 환경 적응에 대한 개인/가족 간 편차 발생
 - 가족서비스 이용 목적 변화
 -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위기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족상담 등 가족갈등 지원이 필요해서 등
 -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홀로 있는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우울감 등으로 인한 개인 심리상담 수요 증가, 노인 돌봄, 상담/교육 영역에서 가족단위 프로그램, SNS 등 비대면 환경 관련 교육 수요 발생

➡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가족서비스 설계 필요

-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족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내용 역시 다양화됨 →
예) 가구별 특성(다문화·다자녀·노인가구·자녀 연령, 재택근무 여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 및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가족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 및 효용성 제고 필요
- 개인 및 가족의 심리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예) 개인상담 및 자조모임,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등